

“예술가는 세상 보는 필터...하찮은 것들을 꺼안다”

광주시립미술관 ‘2022 청년작가 초대전’ 김설아 작가 인도 유학 작품 등 회화·설치 50여점...7일 작가와의 대화

김설아(40) 작가의 작품은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기괴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어떤 작가도 시도하지 않는 금금증을 유발하고 ‘다음’을 기다리게 한다. 그는 큐레이터들이 가장 많이 이름을 호명하는 작가 중 한명이다.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인터뷰를 마친 후 그의 작품은 ‘철학이 담긴 기이한 판타지 소설(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광주비엔날레 본전시회에 참여하고 그룹전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던 그가 20대 후반부터 현재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펼쳐보이는 전시를 열고 있다. 매년 청년작가 한 명을 선정하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을 통해서다.

“김설아-술한 산들이 흠어질 때”(2023년 3월12일까지)전은 최근작부터 작가의 근원이 되는 인도 유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1-5관에서 회화 및 설치 작품 50여점을 펼쳐놓는다.

어두컴컴한 1전시장에는 ‘아홉개의 검은 구멍’ 연작이 펼쳐진다. ‘인간의 몸을 아홉개의 구멍이 있는 도시, 아홉 개의 구멍이 난 거대한 상자’로 본 힌두경전과 불교 경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메모나 책의 구절을 붙여두었고, 각각의 작품 앞에 서면 그가 낭독한 글이 들려온다.

그는 곰팡이, 축수, 벌레같은 몸의 형성, 벗겨진 껍질 등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재에 전적해왔다. 그는 이런 소재를 하찮은 존재가 아닌, 항상 보살피아하는 존재라 여긴다. 그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한다.

그에게 장소의 이동은 의식의 확장만큼이나 작품 세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고향인 여수, 2008년부터 7년간 머물렀던 인도, 작품 세계를 확장시켜준 요코하마, 10년간 살고 있는 광주는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예술가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중요하죠. 인도에서는 작가로서의 마인드 보다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인간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린 작품 중 결국 남겨진 것들은 저의 기억이나 경험에 맞닿아 있는 그 잔상들이었습니다.”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졌고, 살면서 부딪쳐보자는 생각으로 인도로 떠났다. 여수에서 본 잔상들을 결국 인도에서 다시 발견했고, 그의 작품 소재가 됐다.

“인도에서 창작할 때 고향 여수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 등이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부유하는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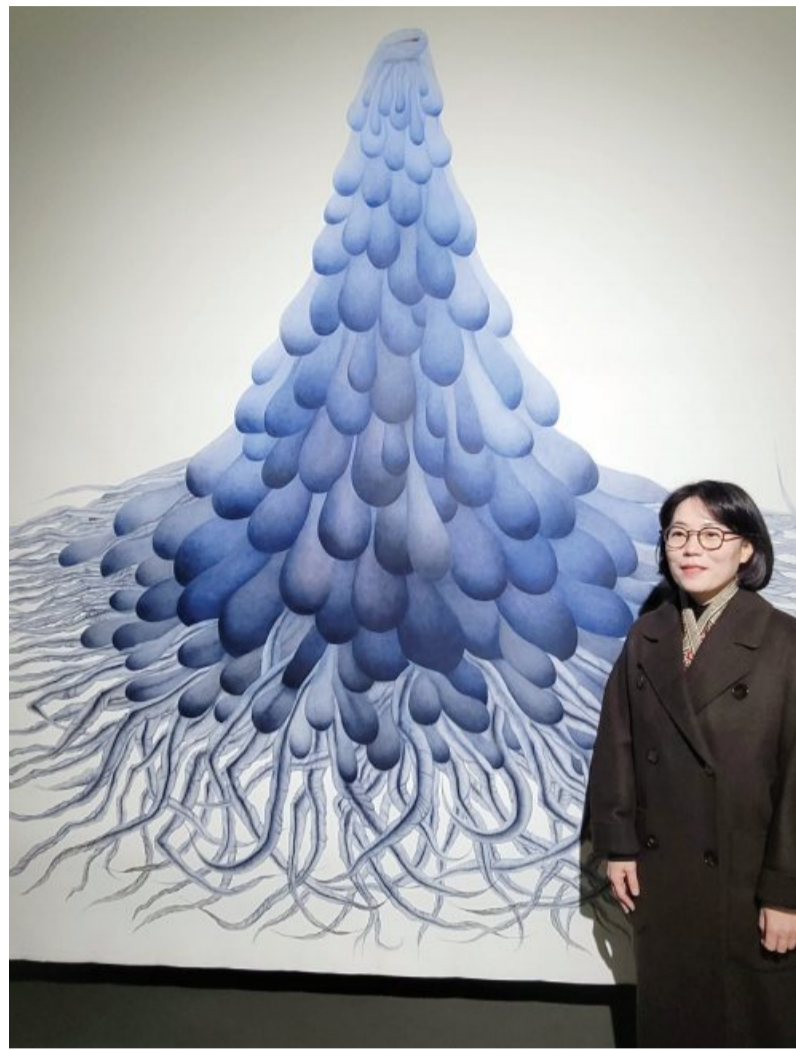
그는 모두가 떠나고 남겨진 존재, 몸으로 우는 존재,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들에 마음이 갔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상실에 대한 감각’이 어찌면 DNA처럼 내재돼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오래 바라봤던 통종의 공간, 상흔을 치유하는 몸짓을 타피스트리 형식으로 작업했고, 이 때 작품은 3전시장 ‘진동하는 고요’에서 만날 수 있다.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 추천으로 참여한 요코하마 레지던시는 ‘곰팡이’를 작업 소재로 삼게 만든 계기가 됐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일본에 남아있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요코하마를 끝없이 산책하며 그는 바다에서부터 된 ‘물의 여정’을 떠올렸다. 구름, 안개, 물방울로 이어지는 그 여정이 끝나는 곳에 피어 있는 곰팡이가 ‘물의 꽃’이 아닐까 생각하고,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쓰나미가 휩쓸던 그 당시 자신이 듣지 못한 소리와 이야기가 바로 곰팡이에 있지 않을까 여졌다.

거대한 것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꼈다는 그는 마친 ‘진구’같은 연약한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며 축수, 곰팡이의 군사 등은 자화상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2전시실 ‘사자의 은유’에

아홉개의 검은 구멍
사자의 은유
진동하는 고요
눈물, 그 건조한 풍경
기억의 팔립프세스트

▶광주시립미술관2022청년작가 초대전 ‘술한 산들이 흠어질 때’에서 포즈를 취한 김설아 작가.



서 만나는 작품들이다. 김 작가는 ‘코란’, ‘사자의 서’ 등을 좋아한다. 그 것들의 상상과 비유를 좋아하고, 은유와 함축에 마음을 준다. 그러다 보면 눈앞을 넘어 우주까지 나아가는 창작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그의 작업은 노동집약적이다. 검은색 잉크를 찍어 세필로 그려나간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솜털 하나하나까지 다 그려낸 세밀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대형 판에 구멍을 뚫고 머리를 심듯이 일일이 전선을 심은 작품 ‘목숨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실한을 한을 얹어 직물을 만드는 듯한 작업에 대해 그는 ‘힘들지만 이런 세밀한 작업이 내 언어를 구현

하는 최선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주의 기억을 쌓으려 끊임없이 걷는 중이다. 광주라는 도시의 문맥을 찾는 작업이다. 역사를 넘어 광주의 지형까지 공부해 가는 과정으로 도시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광주전을 신화학 상상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려 한다.

한편 오는 7일 오후 4시 하정웅미술관에서는 이선영 미술평론가 이선영, 백종옥 미술생태연구소장, 유영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과장이 질의자로 참여하는 작가와의 대화가 열린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포르투갈 소리 도시 지도로 탄생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니 사운드 맵 프로젝트’



멀리 떨어진 두 도시의 학생들이 서로 사는 도시의 ‘소리’를 채집해서 도시 지도를 그리는 ‘미니 사운드 맵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사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포르투갈 브라가시의 브라가 미디어아트센터와 ‘미니 사운드 맵 프로젝트’를 광주예술중학교 학생 41명과 포르투갈 브라가시 안드레 소라레스 초등학교 학생 28명이 함께 지난 9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했다.

두 도시의 학생들은 각각 광주와 브라가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며 각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소리를 직접 채집했다.

광주의 경우 5·18 광주민주묘역, 무각사, 충장로, 전통시장, 브라가시는 집시 노래와 파두 음악이 들리는 장소 등이었다. 광주의 학생들은 브라가시의 학생들이 보낸 소리와 역사를 바탕으로 소리지도 제작했고, 브라가시 학생들 역시 광주에서 보낸 광주의 소리와 도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리 지도를 완성했다.

‘미니 사운드 맵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운영해온 교육프로그램으로 브라가시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미국 소트윈, 중국 창사, 콜롬비아 칼리 등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학생들이 참여했다. 결과물은 G.MAP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펠트·인니 조각상...아시아 문화를 만난다

ACC, 14일부터 전시회 등 다채

중앙아시아 ‘펠트’를 소재로 한 문화유산과 인도네시아 국가 상징인 조각상 ‘가루다’ 등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아시아 문화를 연계한 종교 관련 도서도 볼 수 있어 아시아문화를 깊고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아시아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를 아시아문화박물관(문화정보원 내)에서 잇달아 연다.

먼저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기획 전시 주제는 ‘중앙아시아의 펠트’. 이번 전시는 한-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기획했으며 ‘펠트’ 소재 문화유산을 집중 소개하는 시간이다.

매달 주제를 정해 관련 유물을 소개하는 ‘이달의 소장품’ 전시는 오는 15일부터 개최된다. 이달엔 인도네시아의 국가 상징인 ‘가루다’ 조각상을 소개한다. 전시에 사는 새로 힌두교의 3대 주신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신인 비슈누의 이동 수단을 가루다라고 한다. 이 조각상은 인도네시아 휘장인 가루다 판차실라에 새겨져 있다.



‘가루다’ 조각상(왼쪽)과 중앙아시아 ‘펠트’ 이미지. <ACC 제공>

도서관 도서 추천 서비스는 ‘12월 북큐레이션: 아시아의 종교와 명절’을 선보인다.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와 조각 등을 담은 도록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속 종교와 과학의 만남’, ‘중세 아르메니아의 예술과 종교’ 등 관련 도서도 관객을 기다린다.

박물관 상설전시 콘텐츠의 주제를 변경해 ACC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아시아문화지도 실감 콘텐츠 ‘마나스의 길’과 ‘ACCex 2.0’이 그것.

아시아문화지도 실감 콘텐츠 ‘마나스의 길’은 기존 ‘라미아나의 길(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권역으로 이동해 키르키즈의 영웅사시를 다룬다. 키르키즈 서사시 마나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를 분석한 그래픽 월 등 중앙아시아의 구술문화를 소개한다.

새로운 버전으로 바뀐 ‘ACCex’는 아시아문화 정보를 무인 단말기를 조작해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경란 작 ‘2022 樂-사랑’ 김재희 작 ‘Big Dount’

모녀 작가의 아름다운 동행

서경란·김재희 작가 11일까지 남구 양림미술관

전시장에 화사한 꽃과 나무의 향연이 펼쳐졌다.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쾌한 조각작품도 눈길을 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서경란·김재희 모녀 작가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다.

서경란·김재희 2인전이 오는 11일까지 광주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작들은 모두 화사한 색채감이 눈에 띄고 흰색으로 풀어진 작품은 생동감을 전한다.

서 작가는 ‘2022 樂 나들이’를 주제로 1층 전시장에서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서양화를 전공한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입체적 느낌을 강조한 부조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2022 樂’ 연작은 즐거움과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작품들이다. 꽃과 나무, 고양이, 사람이 어우러진 ‘world’ 시리즈나 경쾌함이 느껴지는 ‘사랑’ 연작은 무한한 희망의 표현이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서 작가는 광주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1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1층 공간에서 작품전을 갖는 김재희 작가의 주제는 ‘MEMORY’다. 이번이 첫 개인전인 김 작가는 전시에서 22점의 작품을 선보인

다.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의 인물상이 주를 이루는 작품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 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 늘 품었던 꿈과 기억하고 싶은 추억 등이 모두 작품 소재가 됐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풀어낸 다양한 캐릭터는 그의 손길을 거쳐 우리에게 찾아왔다.

엄마의 커다란 구두를 신어보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엄마 구두를 신고’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애뜻함이 느껴지고 음악에 맞춰 저만의 춤을 추는 아이, 커다란 도넛 위를 훌쩍 뛰어넘는 아이 등 모든 캐릭터가 사랑스럽다.

그는 3D 그래픽 작업 과정과 특수도색까지 직접 진행, 자신이 원하는 색을 뽑아냈다. 김 작가는 특히 “생기발랄한 원색의 표현은 나의 영혼과 자유로움이 만나서 창작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행복의 끈이 됐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 일반대학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 중이다. 전남도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1세기 정신조각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우즈벡 공연

임방울국악진흥회 9~13일 농암회농악단 등 참여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의 여정으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우즈베키스탄 공연’을 연다.

공연은 임방울국악제 세계화 기여와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양, 판소리 성지 광주의 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오후 3시에는 한국문화예술의집에서 김희상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박빈보 고려인 문화협회장, 강창석 한인회장, 허선행 민주정통중앙아시아협회장, 주재상사원과 동포, 교민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 전통 국악 예술을 펼친다.

먼저 지난해 농악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농암회농악단(사진) 박종환 외 4명이 풍물판굿으로 연다.

이어 제 29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이경아 명창이 ‘심청가 중 눈 뜨는 대목’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민주 외 6명은 부채춤, 기악일반부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김승호, 유세운, 조가완 명인이 기악산조를 무대에 올린다.

올해 제 30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잔디 명창이 ‘쑥대머리’와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을 들려준다.

또 이수지, 박소희, 강재인은 태평무를, 이태경

명인은 ‘백만송이 장미’와 ‘사랑가’를 가야금 병창으로 선사한다. 무대는 전 출연자가 함께 남도민요 연극을 노래하며 막을 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